

국 어

- 문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긴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 ① 말을 바꾸어 탄다.
 - ② 함박눈이 펄펄 내린다.
 - ③ 그날 밤 비가 지독히도 내렸다.
 - ④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 ⑤ 추운 겨울에는 군발과 군고구마가 생각난다.

[해설]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말[言]은 [말:]로 길게 발음하며, 말[馬]은 [말]로 짧게 발음한다.

- 정답 : ④

- [오답풀이]**
- ① 말[馬] : 단음 [말]
 - ② 눈[雪] : 둘째 음절 이하, 단음 (cf. 첫음절이라면 [눈:])
 - ③ 밤[夜] : 단음 [밤]
 - ⑤ 밤[栗] : 둘째 음절 이하, 단음 (cf. 첫음절이라면 [밤:])

[출처] ☞ 해원국어 1권 P. 70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2.~문 4.)

- (가) 님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이로다.
내의 설운 일을 다 아로려 하시거든
우린들 살진 미나리 흙자 엮디 머그리. <제2수>
- (나) 형아 아애야 네 살할 만저 보아
늬손되 타 나관데 양재조차 가타산다
한 젓 먹고 길러나 이셔 닷 마음을 먹디 마라. <제3수>
- (다) 아버지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닭다 엮디하리
평생(平生)에 곱터 못할 일이 잇뿐인가 하노라. <제4수>

- 문 2. 주어진 작품의 창작 의도로 바른 것은?
- 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하여
 - ②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 ③ 한가로운 농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 ④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고 찬양하기 위해
 - 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 문 3. 다음 중 (나)의 밑줄 친 마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는 마음
 - ② 부부 사이의 화목을 방해하려는 마음
 - ③ 임금의 은혜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는 마음
 - ④ 남녀 사이의 분별을 흐리는 행위를 하려는 마음
 - ⑤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려는 마음

- 문 4. 다음 중 (다)의 내용과 관련된 한자성어는?
- ① 거안제미(擧案齊眉)
 -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 ⑤ 풍목지비(風木之悲)

- [해설] 문 2. ~ 문 4.**
- 문 2. 정철이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계몽적·교훈적 노래이다.
- 정답 : ②
- 문 3. ‘제2수’는 형제간의 반목을 금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권하고 있다.
- 정답 : ⑤
- 문 4. ‘제4수’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풍목지비’(風木之悲)라 할 수 있다. 풍목지비(風木之悲)는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효양할 길이 없어 한탄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 정답 : ⑤

- ☆ 정철, <훈민가>
- 연대 : 선조 13년(1580년)
 - 갈래 : 평시조, 연시조(전 16수), 훈민가, 교민가
 - 율격 : 3(4)·4조. 4음보
 - 형식 : 전 16수의 연시조로 직유법, 설의법, 청유 어법 사용
 - 성격 : 계몽적, 교훈적
 - 제재 : 올바른 삶
 - 주제 : 옳은 일의 권장, 유교의 윤리 권장

수	주 제
1	부생모욕의 은혜에 대한 보답
2	임금과 백성의 관계와 부모님의 배려
3	형제간의 반목을 금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권함
4	부모님에 대한 효도 권유
5	부부는 일심동체이자 상호간의 존경의 대상
6	남녀관계가 문란해짐을 경계
7	자녀들에게 학문 권장
8	올바른 행동 권유
9	어른 공경하는 태도
10	올바른 벗의 관계
11	상부상조의 정신
12	애경사에 서로 도울 것
13	농사일에 상부상조의 정신
14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 것
15	도박과 송사를 금함
16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

- [오답풀이] 문제 4.**
- ① 거안제미(擧案齊眉) :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어 공손히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
 -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친밀히 사귀는 뜻함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무성히 자라는 보리를 보고 하는 탄식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에 대한 탄식
 -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음

[출처] ☞ 해원국어 3권 P. 436~437

문 5.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데미들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 ① 작품의 제목과 '향단'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 시적화자는 '춘향'으로 볼 수 있다.
- ② 시적화자는 <춘향전>의 한 대목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다.
- ③ '그네 타기' 행위는 현실을 초극하려는 상징적 행위이다.
- ④ 화자는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여 현실을 벗어나려고 한다.
- ⑤ 지상적 존재인 화자는 하늘로 표상되는 동경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해설] 2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실 세계의 사소한 인연과 애증을 대신하는 사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양버들 나무'는 그네를 매었던 나무로 이 도령과 처음 만났던 그 날의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사물이 되고,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데미'는 현재 춘향은 이 도령과 떨어져 독수공방하는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잘한 나비 새끼'는 춘향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못남자 혹은 세속적인 것이고, '꾀꼬리'는 춘향을 꾀이는 달콤하고 영롱한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계절적 배경인 오월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화자는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④

☆ 서정주, <추천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낭만적, 전통적, 이상적, 동양적, 불교적
- 어조 : 여성적이며 간절한 호소와 갈망의 섬세한 어조
- 제재 : 그네 뛰는 춘향
- 주제 : 현실로부터 초월하고자 하는 갈망, (현실적 고뇌의 극복)
- 특징 : ① 고전적 소재의 현대적 의미 부여
② 현실과 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운율, 이미지, 어조 등과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치밀한

[출처] ☞ 해원국어 3권 P. 76

문 6. 다음 중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과 통제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였다.
- ② 대표적인 작가로는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등이 있다.
- ③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이국적 경향을 표방한다.
- ④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한다.
- ⑤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해설] '낭만주의'란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이 추구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낭만적인 경향을 띤 소설을 가리킨다.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며, 창조적 상상력과 이국적 정조를 표방하고 있다.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등은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 정답 : ②

[출처] ☞ 해원국어 3권 P. 17, 134

문 7. 다음 중 수사법이 다른 하나는?

- ①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② 황홀한 비애
- ③ 찬란한 슬픔의 봄
- ④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해설]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은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역설'이 사용되었다.

- 정답 : ④

[오답풀이]

- ①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역설)
- ② 황홀한 비애 (역설)
- ③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
- 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역설)

[출처] ☞ 해원국어 3권 P. 66

문 8. 다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주된 갈등은?

인테리……인테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장을 또 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테리……해마다 천여명씩 들어가는 인테리……뺨을 본 것은 이들 인테리다.

부르쥬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느니 그들은 결국 폐임을 받아 나무 에 올라갔다가 흔들리우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테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테리인 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프로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테리요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 메이드 인생이다.

- 채만식, <레디 메이드 인생>

- ①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
- ②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 ③ 개인과 사회의 갈등
- ④ 개인과 자연의 갈등
- ⑤ 개인과 운명의 갈등

[해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중에 나타난 현실과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당대의 사회 현실은 실업자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적 궁핍상이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주인공 P는 그 원인을 역사적 조건에서 찾으려고 한다. 개화의 적당한 시기를 놓쳐 버린 대원군의 정책이나 교육만이 개인과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던 개화기 이후의 자유주의 물결 같은 것이 결국은 경제적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답 : ③

문 9. 다음 중 고려시대 작품이 아닌 것은?

- ① 서경별곡
- ② 상춘곡
- ③ 쌍화점
- ④ 이상곡
- ⑤ 만전춘별사

[해설] '상춘곡'만이 조선 성종 시대의 가사작품이다.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고려가요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 가사

- 명칭 : '歌辭'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고 '歌詞'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를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 기원 : ① 고려 속요 또는 경기체가에 그 기원을 둔다는 설
② 4음보의 연속체 교술민요가 기록문학으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설
③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 등에 보이는 시형이 그 기원이라는 설
- 발생 : 최초의 가사 작품에 대해서는 조선 성종 때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賞春曲)'이라 는 견해와 고려말 나옹화상이 지었다는 '서왕가(西往歌)'라는 설이 있으나 대체로 전자를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
- 형식 : ① 3, 4조 또는 4, 4조를 기조로 한 4음보의 연속체 운문이며 행(行)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② 조선 전기 가사는 그 길이가 비교적 짧으나 후기에는 수천 행에 이르는 장편 가사가 있다.
- 성격 : ① 시가와 산문의 중간적인 형태
② 가사는 율문으로 된 수필
③ 율문으로 된 교술 문학
- 내용 : ① 서정성이 강한 작품 - 정극인, <상춘곡> 등
② 실제의 사실과 체험을 기술 - 홍순학, <연행가> 등
③ 이념·교훈을 널리 퍼기 위함 : 조식, <권선지로가> 등
④ 유배문학 : 조위, <만분가> 등
⑤ 내방가사 : 허난설헌, <규원가> 등
⑥ 종교가사 : 최제우, <용담유사> 등

[출처] ☞ 해원국어 3권 P. 455, 문학특강, 서울시 대비 모의고사

문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학 연구의 방법은?

문학작품을 볼 때, 작품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성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작자, 사회, 환경을 중시해서 파악하는 방법

- ① 역사주의 방법
- ② 심리주의 방법
- ③ 형식주의 방법
- ④ 신화주의 방법
- ⑤ 구조주의 방법

[해설] ☆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접근방법	관점	관심대상	방법	관련비평
외재적 비평	표현론	작품-작가	창작의도 연구 전기적 연구 심리상태 연구	역사주의
	효용론	작품-독자	독자의 감동원인 검토	
	반영론	작품-세계	작품 속 세계연구 전형성 검토	
내재적 비평	구조론	작품자체	작품의 언어와 구조 연구	신비평 분석주의 구조주의 형식주의

- 정답 : ①

[출처] ☞ 해원국어 3권 P. 17,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문 11. 다음 속담의 뜻으로 바른 것은?

• 파방에 수수엿 장수

- ① 추하고 보잘 것 없다.
- ② 검소하고 소박하다.
- ③ 기회를 놓쳐 별 볼 일 없다.
- ④ 풍파를 많이 겪어 마음이 굳세다.
- ⑤ 일이 끝난 뒤에도 쓸 데 없이 참견하다.

[해설] '파방에 수수엿 장수'란,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별 볼 일 없게 된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파장에 수수엿 장수'가 있다. 여기서 '파방'의 '파장'을 의미한다. 더불어 '파방'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하던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 정답 : ③

[출처] ☞ 해원국어 서브자료 12

문 12. 다음 관용어의 뜻으로 바른 것은?

· 말소리를 입에 넣다.

- ① 말을 조리 있게 하다.
- ②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 무시하다.
- ③ 남의 비난하는 소리를 참고 견디다.
- ④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로막는다.
- 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웅얼웅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해설] ‘말소리를 입에 넣다.’라는 관용구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중얼중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정답 : ⑤

[출처] ☞ 해원국어 서브자료 12

1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언어 변화는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며, 그 유형은 대체로 음운 변화와 유추, 차용으로 분류된다.

- ① 體系 - 全般 - 類形 - 類推 - 借用
- ② 體計 - 前般 - 類型 - 類推 - 差用
- ③ 體系 - 全般 - 類型 - 類推 - 借用
- ④ 體計 - 前般 - 類形 - 維推 - 差用
- ⑤ 體系 - 前般 - 類型 - 維推 - 借用

[해설]

· 體系 (체계) : (O) 몸 체, 맬 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體計 (체계) : (X) 몸 체, 셀 계

· 全般 (전반) : (O) 온전할 전, 일반 반
어떤 일이나 부문에 대하여 그것에 관계되는 전체, 또는 통틀어서 모두

前般 (전반) : (X) 앞 전, 일반 반

· 類型 (유형) : (O) 무리 유, 모형 형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類形 (유형) : (X) 무리 유, 모양 형

· 類推 (유추) : (O) 무리 유, 옮을 추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에도 추리를 미치는 일

維推 (유추) : (X) 버리 유, 옮을 추

· 借用 (차용) : (O) 빌릴 차, 쓸 용
물건이나 돈을 빌리거나 꾸어 씀

差用 (차용) : (X) 다를 차, 쓸 용

- 정답 : ③

[출처] ☞ 해원국어 1권 P. 318~319, 해원한자

문 14. 다음 중 외래어의 표기가 맞는 것은?

- ① 케익(cake)
- ② 플래쉬(flash)
- ③ 아울렛(outlet)
- ④ 로브스터(lobster)
- ⑤ 하이라이트(highlight)

[해설] lobster는 ‘랍스터’가 아니라 ‘로브스터’로 표기함이 옳다.

- 정답 : ④

[오답풀이]

- ① 케익 → 케이크
- ② 플래쉬 → 플래시
- ③ 아울렛 → 아웃렛
- ⑤ 하일라이트 → 하이라이트

[출처] ☞ 해원국어 1권 P. 248~249, 서울시 대비 동형 문풀, 아침특강

문 15.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월곶(Weolgot)
- ② 섯별(saetbyeol)
- ③ 집현전(Jiphyeonjeon)
- ④ 축석루(Chokseongnu)
- ⑤ 대관령(Daegwallyeong)

[해설] 월곶의 ‘워’는 ‘꺠’에 해당하는 'Wo'로 표기하여야지, 'Weo'는 잘못된 표기이다. 월곶은 'Wolgot'이 바른 표기이다.

- 정답 : ①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모음)

단모음	로마자	이중모음	로마자
ㅏ	a	ㅑ	ya
ㅓ	eo	ㅕ	yeo
ㅗ	o	ㅛ	yo
ㅜ	u	ㅠ	yu
ㅡ	eu	ㅟ	yae
ㅣ	i	ㅞ	ye
ㅙ	ae	ㅚ	wa
ㅜ	e	ㅜ	wae
ㅟ	oe	꺠	wo
꺠	wi	꺡	we
		ㅡ	ui

[오답풀이]

- 음운변화 반영
-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음
- 체언의 경우 ‘ㅎ’을 밝혀 적음

- ② 섯별[섿별⇒섿별] → saetbyeol (된소리되기 미반영)
- ③ 집현전[지편전⇒집현전] → Jiphyeonjeon (체언, ‘ㅎ’을 밝힘)
- ④ 축석루[축성누⇒축성누] → Chokseongnu (된소리되기 미반영)
- ⑤ 대관령[대광령] → Daegwallyeong (음운변화-‘유음화’ 반영)

[출처] ☞ 해원국어 1권 P. 237, 서울시 대비 동형 문풀 2회 10번, 아침특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7)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津頭江)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읊니다.

 옛날, 우리 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 가며 슬피 읊니다.

문 16.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시의 저자는 윤동주이다.
- ② 창작연대는 1930년대이다.
- ③ 사별한 임을 그리는 노래이다.
- ④ 이 시의 제재는 서북지방 접동새 설화이다.
- ⑤ 계모에 대한 의붓딸의 원한을 그렸다.

문 17. 다음 중 ㉠~㉤의 뜻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아우래비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진두강(津頭江) 가람가는 강과 가람의 의미 중첩이다.
- ③ ㉢불설워는 ‘몹시 서럽다’의 평안도 방언이다.
- ④ ㉣오랍동생은 여자가 자기 사내동생을 일컫는 말이다.
- ⑤ ㉤야삼경(夜三更)은 밤 11시~1시를 나타낸다.

[해설] 문 16. ~ 문 17.

문 16. 김소월의 <접동새>는 평안도 지역(서북지방)에서 전해지는 접동새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정답 : ④

문 17. ‘아우래비’는 ‘아홉+오래비’의 활용조 현상이다.

- 정답 : ①

☆ 김소월, <접동새>

- 성격 : 토속적(향토적),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 운율 : 3음보격의 변형
- 표현 : 의성어를 통해 육친애의 정을 표출, 통사적 구조의 유사, 동음어나 유사음의 반복
- 제재 : 접동새 설화
- 주제 :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극하려는 애절한 혈육의 정 (식민지 지식인의 허무 의식)
- 구성 : ① 1연 - 접동새의 울음 소리
② 2연 - 죽은 누나의 울음 소리의 재생
③ 3연 - 의붓어머니의 시샘에 죽은 누나
④ 4연 - 죽은 누나와 접동새의 동일화
⑤ 5연 - 애절한 혈육애의 정한

[오답풀이] 문 16.

- ① 이 시의 저자는 ‘김소월’이다.
- ② 창작연대는 1920년대이다.
- ③ 의붓어머니의 시샘 때문에 죽은 누이의 한을 그린 작품이다.
- ⑤ 의붓딸이 아닌 누이의 원한을 그렸다.

[출처] ☞ 해원국어 3권 P. 111

문 18. 다음 중 외래어의 표기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8 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

[해설]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정답 : ①

[출처] ☞ 해원국어 1권 P. 240,

서울시 대비 동형 문풀 3회 14번 문제 동일, 아침특강

문 19. 다음 중 ‘설득’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청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말하기를 의미한다.
- ②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대로 하여금 나의 생각을 인정하게 한다.
- ③ 나의 생각과 같은 경우 더욱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
- ④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한다.
- ⑤ 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에 해당한다.
- 정답 : ⑤

- ☆ 글의 진술 방식
- 설명 : 정보 전달이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
 - 논증 : 어떤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이유를 밝히는 논리적 절차, 또는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념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설득이 목적인 글에 쓰임
 - 서사 : 사건이나 행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풀어 진술하는 방식
 - 묘사 : 어떤 대상을 눈에 보여 주듯이 글로서 그려내는, 즉 대상의 감각적 인상을 재현하는 질술 방식

[출처] 📖 해원국어 2권 P. 10

- 문 20. 다음 중 ‘보름’을 뜻하는 한자어는?
- ① 朔
 - ② 旬
 - ③ 晦
 - ④ 念
 - ⑤ 望

[해설] ‘망(望)’은 ‘보름’을 뜻하며, ‘망간(望間)’이라는 말은 보름 무렵을 나타내는 말이다.
- 정답 : ⑤

- [오답풀이]**
- ① 朔(삭) : 초하루(음력의 매월 1일)
 - ② 旬(순) : 열흘
 - ③ 晦(회) : 그믐날(음력에서 한 달의 맨 끝날)
 - ④ 念(념) : 스무날

[출처] 📖 해원국어 1권 P. 280, 서브노트 P. 278